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사업의 개요와 전망*

김경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reload4@korea.ac.kr

김광년(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ight1979@hanmail.net

-
1. 머리말
 2. 과시 DB 연구의 필요성
 3. 과시 DB 연구의 수행 방법
 4.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고 그 전망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2019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으며, 기존에 본 연구진에서 작성하였던 연구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내용이 토대가 되었음을 밝혀 둔다.

과시 DB 연구는 문헌학적 연구와 한문문체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과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조선시대 학술, 문학, 출판인쇄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과거 문제 및 문체, 수험 결과물(시험 답안), 수험 참고서 세 방면에서 DB를 구축하고 이를 문헌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수사 문체와 논리 구축 방식의 변천사 연구, 동아시아 과거 문화의 비교 연구,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어】 朝鮮, 科擧, 科試, 科文, 文體, 科題, 제목, 修辭, 論理構築方式

1. 머리말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¹⁾의 개요를 소개하고 그 전망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과시 DB 연구는 문헌학적 연구와 한문문체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과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하고 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조선시대 학술, 문학, 출판 인쇄 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수사 문체 및 논리 구축 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시의 科題와 文體 등에는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현실 감각을 문학 및 학문의 내용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념과 논리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學術史, 文化史, 文學史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1) 이하 ‘과시 DB 연구’로 약칭함.

과거를 전면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과제와 문체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수 공용서적(韻書, 字書 등), 수험 대비용 서적, 수험 결과 편찬물(과문 선집 등)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각 시대의 학술 경향과 문화적 역량, 수사 문체 및 논리 구축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시대 科擧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주된 연구의 관점은 과거라는 제도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실제 연구에서도 과거의 제도적 요소와 시행 세칙의 연혁 등을 추출하고 이를 정치·사회에 연관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제의 인재 선발에 있어 문학이 중추적 역할이라는 인식 아래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과거시험의 준비, 과목별 출제문제의 문체적 특징, 문인들의 지적 토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²⁾ 그럼에도 과거시험 시행의 全國性을 고려할 때 과거와 관련한 문화 풍토의 실체와 문학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³⁾ 및 과거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한 도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었다.⁴⁾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과 관련하여 미처 검토하지 못한 자료가 상당량이 실재한다는 점과⁵⁾, 과문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 제기되었다.⁶⁾

한편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합격자들의 인적 관계망을 구성하려는 시도⁷⁾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적용되어 다양한

2) 강석중(1999); 김동석(2013); 이상욱(2015) 등.

3) 황위주(2005).

4) 심경호(2015).

5) 박현순(2015).

6) 이상욱(2017).

7) 이재욱(2017).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인적 관계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물에 관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과거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다수 제출되었고,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는 등, 과거는 꾸준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관련 기초 자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와 집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며, 과거를 통한 학술사, 문학사 연구, 특히 수사문체 및 문화사 연구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시 DB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과시 DB 구축을 통해 과거를 통해 학술사와 문화사, 문학사 및 수사 문체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과시 DB 연구의 필요성 및 수행 방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고찰하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2. 과시 DB 연구의 필요성

과시 DB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문 연구를 통한 한국 한문학 연구의 심화 및 그 특징 이해.

조선의 과거시험에서 사용된 문체 양식은 중국 과거의 문체 양식과는 다른 조선만의 독특한 문체, 즉 科文으로 형성되었다. 통상 한국 한문학 연구가 중국과의 수용 관계를 따지는 데 치우쳐져 있는 현실에서, 한국 한문학의 독자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양식의 하나가 바로 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과거 문체와 조선 과시 문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 과시의 독자적 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은 한국 한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어 과거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자료로 학계에 제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학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한편, 과거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인들은 과문을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연마해야 했다. 이를 위해 조선 시대에는 작문 방법이나 과문 문체의 격식을 설명하는 다양한 수험서들이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역대 과거에서 제출된 모범 답안들을 모은 책들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모범 답안 모음집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과거 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편찬된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과시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및 검토는 과거의 실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과문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한국 한문학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한문학 연구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둘째, 비교 연구를 통한 조선 과거의 특징 이해.

조선시대의 과거는 文筆 시험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과거와 유사한 점도 있다. 특히 한 시대의 학술 사상, 현실 인식, 역사 해석, 문학적 내용을 均齊 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차별성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중국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지향한 목표와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선 과거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것과 면밀하

게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과거에서 부과된 일부 문제와 문체는 중국의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조선 과시의 독자성을 드러낸 것들이 많다.

한편, 중국 외에도 베트남은 오랜 기간 과거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며, 통상 과거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인식되는 일본의 경우도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에 일시적으로나마 과거제도가 시행된 바 있고, 이후의 取才에서도 書寫의 재능을 강조하는 등 과거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지녔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과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중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비교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한국 과거 문화의 특징적 면모는 더 효율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거 연구를 통한 조선시대 지성사의 체계적 이해.

과거는 儒學과 文學에 대한 역량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강한 시대성과 역사성을 띠고 있는 제도이다. 조선에서는 과거를 통해 문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학술과 사상, 문화 등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으므로, 과거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들은 문학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사상, 문학, 문화의 동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의 연혁과 운영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과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조선시대 지성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 수단이 된다.

조선시대 과거와 관련된 문제, 과시문, 수험용 도서 등의 정보는 동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국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부 科題는 문집이나 각종 편찬물 속에 散在되어 있지만, 종래에는 그것이 과거와 관계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인물들의 유사 정보와 상관되어 있는 사실을 적절하게 밝히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과거의 과목별, 부과 문제별, 제목별 정보

를 다른 문화적 결과물들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시야를 개발하기 위해, 과거 관련 자료 일체를 DB로 구축하여 학계에 제공하고자 하는 바, 이로써 한국문학, 한국사학, 한국철학의 연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 문화의 형성 과정과 지식 정보의 축적 방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과시 DB 연구의 수행 방법

과시 DB 연구는 1) 과거 문제 및 문체 2) 수험 결과물(시험 답안) 3) 수험 참고서 세 방면에서 DB를 구축하고 이를 문헌학적으로 연구하며, 이상을 토대로 4) 조선시대의 수사 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에 대한 연구 5) 동아시아 과거 문화의 비교 연구 6)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차별 연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연구 목표 : 과시(科試) 자료의 목록 조사 및 DB 구축		
	연차	DB 구축	연구
1단계	1년차	과거 문제 및 문체의 목록 조사와 DB 구축	과거 문제 및 문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2년차	수험 결과물(시험 답안)의 목록 조사와 DB 구축	수험 결과물의 문헌학적 연구
	3년차	수험 참고서의 목록 조사와 DB 구축	수험 참고서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2단계	2단계 연구 목표 : DB의 보강 및 DB 활용 연구		
	연차	DB구축	연구
	1년차	과거 문제 및 문체 DB의 보강	수사 문체와 논리구축방법 연구
	2년차	수험 결과물 DB의 보강	동아시아 과거 비교 연구
	3년차	수험 참고서 DB의 보강	과거를 통한 지성사와 학술사의 종합 연구

1) 과거 문제 및 제목의 조사 및 DB 구축

1단계 3년은 자료 목록 조사와 기본 DB 구축 및 이와 관련된 문헌학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연차별로는 1년차 과거 문제 및 문제, 2년차 수험 결과물(시험 답안), 3년차 수험 참고서 이상의 세 영역에서 각각 자료 목록 조사와 DB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헌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① 1차년도 DB 구축 대상 : 과거 문제 및 문제

과거 시험에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와 문제의 DB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실린 자료들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ㄱ. 방목류 ㄴ. 과문선집류 ㄷ. 개인문집류 ㄹ. 역사기록류의 네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과거 출제의 실상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ㄱ. 방목류

과거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과거 시험마다 제작되었던 榜目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규장각에 소장된 『崇禎三甲寅慶科庭試文科榜目』(奎749, 그림1)을 통해 1794년(정조 18) 2월 25일에 치러졌던 慶科試 初試의 시험 문제를 도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初試甲寅二月二十五日			
一	試官	李	南
二	試官	李	南
三	試官	李	南
四	試官	李	南
五	試官	李	南
六	試官	李	南
七	試官	李	南
八	試官	李	南
九	試官	李	南
十	試官	李	南
十一	試官	李	南
十二	試官	李	南
十三	試官	李	南
十四	試官	李	南
十五	試官	李	南
十六	試官	李	南
十七	試官	李	南
十八	試官	李	南
十九	試官	李	南
二十	試官	李	南
二十一	試官	李	南
二十二	試官	李	南
二十三	試官	李	南
二十四	試官	李	南
二十五	試官	李	南
二十六	試官	李	南
二十七	試官	李	南
二十八	試官	李	南
二十九	試官	李	南
三十	試官	李	南
三十一	試官	李	南
三十二	試官	李	南
三十三	試官	李	南
三十四	試官	李	南
三十五	試官	李	南
三十六	試官	李	南
三十七	試官	李	南
三十八	試官	李	南
三十九	試官	李	南
四十	試官	李	南
四十一	試官	李	南
四十二	試官	李	南
四十三	試官	李	南
四十四	試官	李	南
四十五	試官	李	南
四十六	試官	李	南
四十七	試官	李	南
四十八	試官	李	南
四十九	試官	李	南
五十	試官	李	南
五十一	試官	李	南
五十二	試官	李	南
五十三	試官	李	南
五十四	試官	李	南
五十五	試官	李	南
五十六	試官	李	南
五十七	試官	李	南
五十八	試官	李	南
五十九	試官	李	南
六十	試官	李	南
六十一	試官	李	南
六十二	試官	李	南
六十三	試官	李	南
六十四	試官	李	南
六十五	試官	李	南
六十六	試官	李	南
六十七	試官	李	南
六十八	試官	李	南
六十九	試官	李	南
七十	試官	李	南
七十一	試官	李	南
七十二	試官	李	南
七十三	試官	李	南
七十四	試官	李	南
七十五	試官	李	南
七十六	試官	李	南
七十七	試官	李	南
七十八	試官	李	南
七十九	試官	李	南
八十	試官	李	南
八十一	試官	李	南
八十二	試官	李	南
八十三	試官	李	南
八十四	試官	李	南
八十五	試官	李	南
八十六	試官	李	南
八十七	試官	李	南
八十八	試官	李	南
八十九	試官	李	南
九十	試官	李	南
九十一	試官	李	南
九十二	試官	李	南
九十三	試官	李	南
九十四	試官	李	南
九十五	試官	李	南
九十六	試官	李	南
九十七	試官	李	南
九十八	試官	李	南
九十九	試官	李	南
一百	試官	李	南

그림1. 숭정삼갑인경과정시문과방목
(규장각)

1793년 경과시 초시 시험문제

시험장소	문체	문제
1소	賦	宵雅肆三官其始
	表	擬宋翰林學士司馬光謝以如兩漢制誥仍命置告懷中
2소	賦	景星出卿雲興
	表	擬陶唐群臣賀華封人祝壽富多男子
3소	賦	南面而聽天下嚮明而治
	表	擬周群臣賀思皇多士生此王國

본 연구에서는 개별 방목 자료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시험 문제 및 문체 정보를 확인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DB로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조방목』을 중심으로 기 구축한 자료가 있으나, 이는 개별 방목의 조사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⁸⁾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해 기 구축 자료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 과문선집류

과거의 모범 답안을 모아 놓은 과문 자료집에는 예시 답안과 함께 해당 답안이 제출된 시험에 대한 정보(시행 연도, 종류 등)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東人詩抄』(古朝45-가445, 그림 2)에는 1735년(영조 11)에 치러진 增廣試 합격자들의 답안을 수록하고 있는데, 답안 자체는 시 답안만을 수록하였으나 부 문제도 부기해 놓음으로써 당시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8)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은 『국조방목』 등의 종합 방목을 중심으로 역대의 과거 시행 사실 및 합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DB화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단회 방목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않았고, 『국조방목』에 수록된 시험 문제만이 DB화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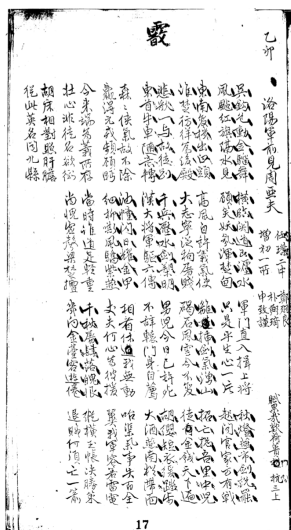


그림2. 동인시초(국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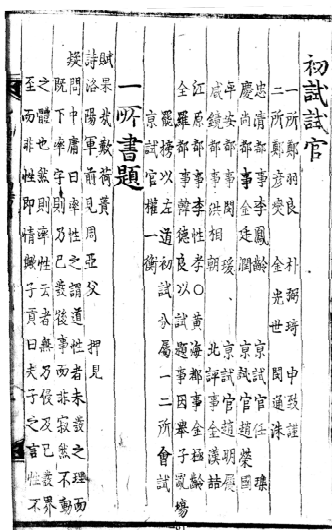


그림3. 을묘증광사마방목(국립)

책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증광 진사시 1소에서는 詩 문제로 “洛陽軍前見周亞父”가 출제되었고 賦 문제로 “果哉歎荷蕢”가 출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시험의 단회 방목인 『乙卯增廣司馬榜目』(그림3)에 수록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수집을 통해 방목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더라도 문제 관련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보충하여 보다 완전한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㉔. 개인문집류

개인문집에 수록된 개별 답안 자료에는 해당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부기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험관으로서 출제한 문제도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증광·선조 연간의 문인인 梁應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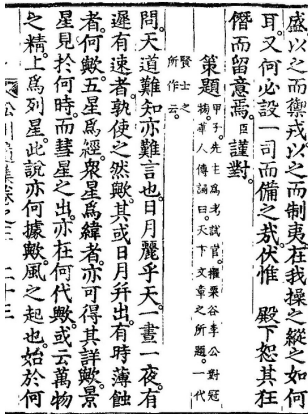


그림4. 송천선생유집(국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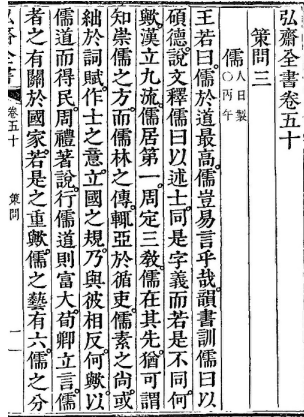


그림5. 홍재전서(규장각)

(1519~1581)의 문집인 『松川先生遺集』 권3에는 ‘策題’ 문체가 별도로 편차되어 있고, 1564년(명종 19) 식년 문과에서 양응정이 시험관으로서 출제했던 문제가 당시 장원을 했던 李珥의 답안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림4) 해당 시험의 개별 방목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국조방목』에는 합격자 명단 등 제한된 정보만 담겨 있으므로, 양응정의 이 자료는 해당 시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관련 자료의 조사에서 개인문집류가 중요한 이유는, 成均館 儒生을 대상으로 한 별시(人日製, 到記科, 黃柑製 등)와 같이 방목이 남지 않는 별시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人日製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正祖의 문집인 『弘齋全書』에는 인일제에서 정조가 출제한 對策 문제 5편이 수록되어 있는 바, 이는 정조의 사상, 문학 등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다. (그림5)

이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정규 과거 외에도 문신들에게 月課 등을 부여하

여 그들의 文才를 시험하였는데, 이때 출제된 문제들 역시 과거와 관련되어 한 시대의 문풍과 학술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의 <韓國文集叢刊> 목차를 살펴 보면 문인들이 월과로 제출한 작품으로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730여 편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역시 DB 구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본 연구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집총간 소재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문집총간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의 문집류까지 폭넓게 조사하여 관련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ㄹ. 역사기록류

조선시대 역사를 다룬 서적들에서도 과거 및 관련 시험의 문제가 다수 기록되어 전한다. 『日省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이 책에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黃柑製, 三日製 등 각종 별시의 문제 자료, 抄啓文臣을 대상으로 한 제술 시험의 문제 자료 등이 매우 풍성하게 남아 있어서 擬作 문제의 경우 제목만으로도 이미 169건에 이르는 문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를테면 1779년(정조 3) 12월 9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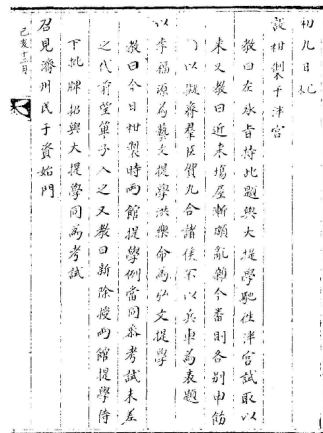


그림6. 일성록(규장각)

성균관에서 黃柑製를 設行하였는데, 이때 시험 문제로는 “齊群臣賀九合諸侯不以兵車”를 제목으로 表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그림6)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다른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시험 관련 정보들로서, 본 연구를 통해 반드시 DB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② 2차년도 DB 구축 대상 : 수험 결과물

과거 문제 및 문제의 DB 구축과 더불어 실제 과거 시험에 제출되어 합격한 답안들 역시 본 연구의 DB 구축 대상에 해당된다. 수험 결과물은 ㄱ. 試券 ㄴ. 과문선집 ㄷ. 개인문집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한다.

ㄱ. 試券류

시권은 현재 전국에 퍼져 있어서 그 실상조차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급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권 자료들을 대상으로 답안 자료의 DB화를 진행한다. 한편 시권에도 후대 사람들이 시험 관련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 자료를 DB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만 수험 결과물을 DB로 구축함에 있어서 시권 자료 중에서 불합격 시권의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격 시권이 연구 자료로서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ㄴ. 과문선집류

과문선집도 시권과 마찬가지로 매우 방대한 양이 현전하고 있다. 표제에 과거를 의미하는 ‘科’자가 제시된 자료만 해도 목록 상으로 400여 건 이상이 검색되고 있으며, 표제에 드러나지 않으나 사실상 과문선집인 자료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제 과거에 제출된 답안의 DB 작성이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 중에서 실제 합격 답안을 수록한 자료들에 한정하여 이들을 목록화하고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㉔. 개인문집류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험 결과물인 답안 역시 개인 문집에 산견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趙光祖(1482-1519)의 문집인 『靜菴先生文集』 권1에는 그가 1510년(중종 5)에 치러진 식년 진사시에서 장원급제했을 때 제출했던 답안인 「春賦」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金錫胄(1634-1684)의 『息菴遺稿』 別稿에는 1662년(현종 3) 증광시 會試에서 장원했을 때 제출한 「天地設位而易行于其中賦」가 수록되어 있다.(그림7) 이처럼 문집에 수록된 과문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답안을 주로 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집 저자의 문학적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科文은 문집에 수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문집류에 실린 과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과거 답안을 수집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급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 전적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작품들을 추려내고, 이를 DB로 구축할 것이다.

③ 3차년도 DB 구축 대상 : 수험 참고서

과거제도가 시행을 거듭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험 참고서의 생산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과거 문제의 양식,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만한 문구들의 抄集 등 다채로운 형태의 수험 참고서가 개발되어 대중에 유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문제 및 답안의 DB 구축과 더불어 과거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수험 참고서류 서적들도 조사하여 DB 구축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대중에게 널리 유행하였던 참고서적, 이를테면 『策文準의』 등의 서적을 선별하여 내용 전체를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⁹⁾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 주요 참고서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소장처/소장자	내용
科儼規式	규장각	표문(賀,進,謝,請,辭,乞), 詔, 制, 誥, 箴, 贊 등 변려문 작성법 소개
科文規式	규장각	시험 과목에 대해 科題에 따라 그 답안 작성법을 문체별로 간단히 서술.
儼規	국립중앙도서관	表, 銘, 箴의 작성법, 范文, 표문 작성에 필요한 장단구 등 수록
駢儼華藻	국립중앙도서관	표문 작성법, 상투구, 策文 형식을 설명한 글,箴 한 편 수록.
策文準的	국립중앙도서관	책문 작성법 소개, 예문 수록
策型	한중연 장서각	책문의 형식 설명
表規	허경진 교수	賀, 進, 謝, 請, 辭, 乞 등 표문의 작성법 소개.
表式	허경진 교수	賀, 進, 謝, 請, 辭, 乞 등 표문의 작성법 소개.
表椎	한중연 장서각	표의 형식 설명

이렇게 과거 대비용임을 명시한 참고서들 외에도 조선시대 문헌 중에는 과거 대비용으로 작성된 것이 분명한 것들이 상당수 전해지고 있다. 이들 자료는 아직 연구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 향후 과거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要覽』(한古朝93-25, 그림7)은 편저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책의 후반부를 보면 각종 문집에서 과거 문제로 출제될 만한 구절들을 뽑아 놓고, 다시 科試 문체별로 예상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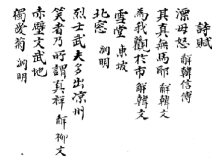


그림7. 요람(국립)

9) 허경진·최영화(2014), 이상욱(2015) 등.

과 함께 그 출전을 제시해 놓고 있는, 사실상의 과거 대비용 수험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험 참고용 서적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한편, 과거시험과 관련하여 각종 韻書와 字書類 서적 역시 필수적인 참고서로 활용되었다. 특히 科詩 양식은 一韻到底를 원칙으로 하여 운율과 平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수 참고서류들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해제를 붙임으로써 과거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2) DB 활용 연구 및 총서 편찬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자료 수집과 DB 구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DB를 활용한 실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과거 관련 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DB 구축을 통해 축적된 조선시대 과거제도 및 사회, 문화, 출판 등 다방면에 관련된 지식을 입체적으로 조직화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의 문제들이 수사뿐만 아니라 논리구축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 시대별 혹은 개인별로 문제의 변천과 논리구축방식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고 이를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과거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전의 과거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3년의 연구 기간은 자료 목록 조사와 DB 구축이 연구의 주 대상이 되므로, 과거 관련 자료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를 DB 구축 작업과 더불어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연차별 DB 구축 계획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의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 바, 자료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는 본 DB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⁰⁾

한편 2단계 연구 기간에는 과거 자료 DB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DB 구축과 함께 수사문체 및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동아시아 과거 비교 등 과거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2단계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연차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서로 출간할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과거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만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과거 문화의 비교 연구는 이 세 국가의 과거제도와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비교하는 방식을 중심에 두되, 헤이안 시대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득실 역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 특징적 면모 역시 자연스럽게 부각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 ① 해외 과거 연구자들을 초청한 강연회 혹은 발표회 개최(연 1-2회)를 통해 중국, 베트남의 과거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 ② 해외 소장 한국 과거 문헌의 현지 조사 및 자료 확보, DB 보완
- ③ 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 ④ 동아시아 과거제도 비교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⑤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총서 발간

10) 이미 2년차까지의 학술대회 개최는 완료된 상태이다. 1년차는 동양고전학회와 공동으로 “조선시대 과거 문헌의 종합적 검토”라는 제목의 기획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년차는 “동아시아의 과거제도와 문학사의 전개”라는 제목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자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심경호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후자의 경우 본 연구 연구진 외에도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의 Alexander Des Forges 교수, 神戸市外國語大學의 紺野達也 교수, 香港浸會大學의 盧鳴東 교수, MIT의 Wiebke Denecke 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 DB 구축 전략

문헌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단계별 과제 수행을 통해 DB 자료로 가공하게 된다.

① 실물 자료 확보

DB화 이전에 원문 이미지 자료를 인쇄물 및 이미지 파일(pdf, jpg 파일 등)의 형태로 확보하여 연구팀이 연구 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면서 수시로 문헌 비평, 원문 확인 등의 작업에 활용한다.

② 문헌 비평을 통한 신뢰도 확보

현전 과거 관련 자료들은 매우 방대하지만, 그중에는 시험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자료의 진위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관련 근거 자료를 참조하여 해당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는 수집된 과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한 문헌 비평을 진행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③ 원문 입력 및 교감

위 과정을 통해 확보된 원문을 전산화한다.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태가 좋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자료의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작업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때 업체를 통해 입력된 원문은 오타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연구보조원들이 해당 자료의 원문을 전수 대조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기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연구보조원들이 원전 비평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향후

고전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업체에 맡기기 어려운 초서, 행서 필사본 등은 연구진이 직접 자료 입력을 진행한다. 연구보조원들이 1차 자료 입력을 맡고 전임연구원이 이를 점검하되 초서, 행서 등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의 경우에는 본 연구소 소속 거점 번역팀 연구진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입력을 도모한다. 거점 번역팀 연구진은 다년간 고전번역 작업에 종사해 온 전문가 집단으로,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에 매우 큰 조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원문 가공

입력된 원문은 표점이 되어 있지 않은 원자료이므로 이용의 편의를 위해 원문을 표점한다. 이때 구체적 표점 방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표점 및 교감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⑤ DB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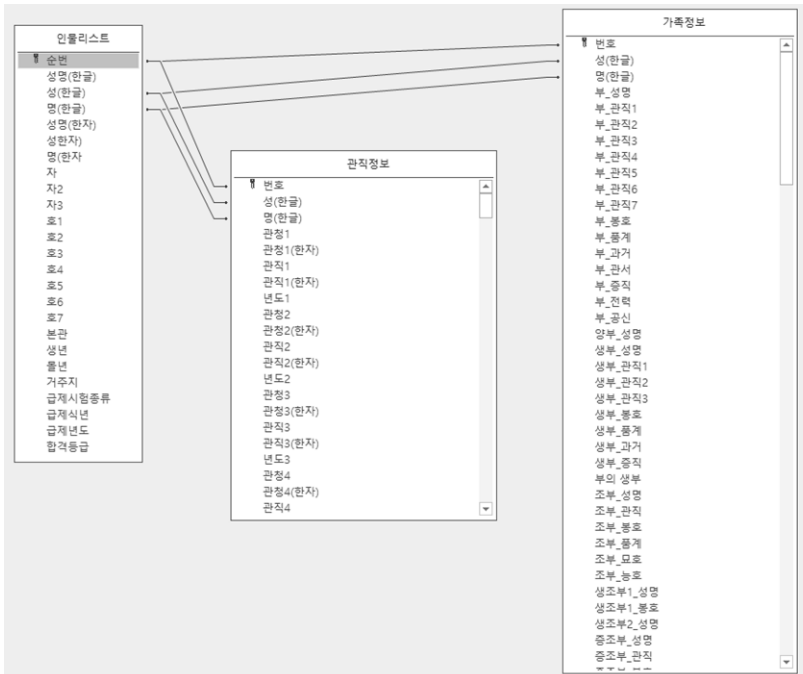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DB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 비정형 데이터(데이터 테이블과 연결된 정형 구조의 데이터 모델을 준수하지 않는 데이터의 한 형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 데이터 간 서로 상호 의존성이 높으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매우 크다.
- 모든 데이터가 특정 값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예상치 못한 데이터 구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자료 및 자료형(data type)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생성, 수정, 삭제)할 필요

가 있다.

○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므로 기본적인 파일형(jpg, png 등의 그림 파일이나 엑셀, txt 데이터)과의 연동성이 좋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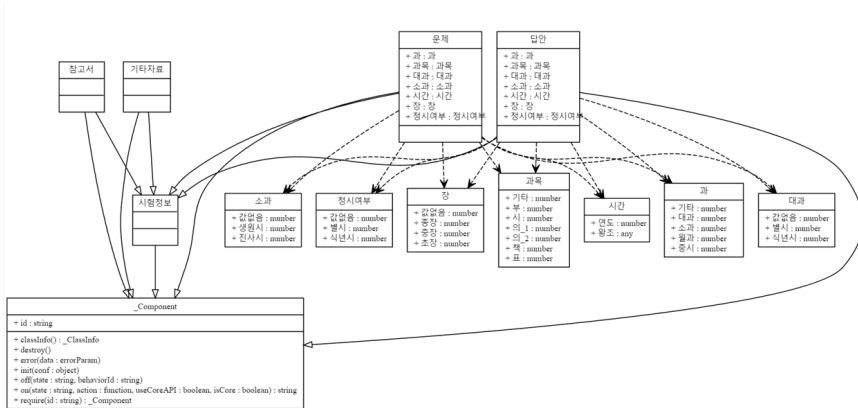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은, 많은 사람이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MySQL이나 Excess 등의 기존의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를 이용한 관리도 고려하지만, 21세기 초반에 개발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최신 엔진인 No-SQL을 필두로 하는 Key-Value + Document 형의 집합-지향모델(Aggregate-Oriented Mode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



1단계-1년차 자료 목록 조사의 대표자료(과거 문제 및 문체)인 방목자료의 경우, 방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물 database를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방목 자료는, 과거시험에 급제한 인물(태조-고종까지의 15,151명)들의 목록을 저장한 기록문헌으로써, 인물의 기본정보를 축으로, 급제한 시험, 급제식년, 급제년, 합격등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시각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구조)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작업환경은 Excel과 Comptability가 높은 Access를 축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될 대부분의 자료는 추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원자료(raw-data)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V. 연구과제 수행계획]-[2.연구방법 및 내용]-[2.3 DB구축 전략]에서 언급한 데이터가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타입 스키마를 아래와 같이 구축한다. 이는 Key-Value 데이터타입을 대표하는 JSON파일로 작성한다.



4.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1)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종합적·체계적 DB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강화

본 연구는 조선시대 과거 관련 문헌들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완료되면 기존에 여러 곳에 散在되어 있어서 정리되지 못했던 과거 관련 문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학계 및 일반 대중에 제공될 것이다. 특히 원문 DB의 제공은 본 연구의 성과를 더욱 폭넓게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비해 훨씬 활성화되고, 일반 대중들의 과거에 대한 관심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문사철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근대 문화의 형성 과정과 지식의 축적 방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과문 작품들이 발굴됨으로써 조선시대 문학, 역사, 철학 연구에도 요긴한 자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과문 자료의 집성을 통해 문집을 남기지 못했던 인물들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문집이 있더라도 문집에서 누락된 작품을 확보함으로써 자료의 외연을 확대하고 연구의 깊이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 모색

과거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별 연구자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실 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어 따라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거 관련 문헌 DB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그 전모가 파악되지 못했던 과거 관련 문헌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아울러 체계적인 자료 가공과 분류값 부여 등으로 과거 관련 문헌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제도의 시행, 교육적 측면 등에 한정되었던 과거 연구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한문학 연구의 질적 심화

특히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되는 DB를 활용하면 과거제도가 전근대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 제 방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문학 방면 연구와의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과거제도를 조선 중기 文風의 특성과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시도가 일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¹¹⁾, 본 연구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문학과 과거와의 길항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조선시대 문학사의 전개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역동적으로 해명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들이 지속됨으로써 한국한문학 연구는 기존에 비해 질적으로 훨씬 향상된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아시아 과거 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한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 해명

본 연구는 DB 구축 작업과 더불어 근대 이전 인접지역, 특히 중국의 과거제도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과거의 득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의 시야를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와

11) 안세현(2011).

중국 외에도 과거제도를 운영한 바 있는 베트남, 헤이안 시대에 과거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 일본 등도 비교의 대상에 포함하여 동아시아 과거제도의 같고 다름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과거 문화의 특징 및 科文의 특징적 면모가 더 효율적으로 부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5) 교육 및 문화 방면으로의 활용과 그 토대 제공

조선시대 교육과 문화는 현대 교육 및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과거는 특히 그것이 사회 전반, 학술 전반과 다채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문화산업의 寶庫라 할 수 있다.

교육적인 방면에서, 과거의 문체 중 과표, 과책 등은 매우 엄밀한 논리성이 요구되는 문체로서 현대의 논술 및 글쓰기 교육의 참고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관련 연구를 진전시켜 논술 및 글쓰기 교육의 교재 집필 및 교안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일반 대중을 위한 강의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과거 관련 문헌의 DB 구축을 통해 전근대 지식인들의 논리 구축 방식의 변천에 대한 연구도 겸하고자 하는 바, 이는 논술 및 글쓰기 교육 방안의 모색과도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과문은 문인들의 시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문학 작품이기도 하므로, 개별 독서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즉 과문의 名篇을 선발하여 교양서를 집필하거나, 과문을 통해 제시된 사회 현안에 대한 대책들을 현대 사회의 여러 사회적 현안과 연계하여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현대 사회 현안의 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

과거에는 조선시대 국가 이념과 정책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것은 조선 500년 동안 축적되어 왔다. 또한 과거의 문제와 답안에는 당대 조선의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에 국가의 시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현대의 우리는 선조들이 장기간 동안 축적하여 우리에게 남겨 준 과시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과거 사회의 현안에 대한 선현들의 고민을 되짚어보고, 이를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교육, 학술, 사회, 문화 등 제 방면에 걸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인문학적 토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고 그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과시 DB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 및 문화사, 학술사 등의 종합적 이해에 꼭 필요한 작업임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시 연구는 과시 DB의 내용을 확대 및 보완해 나가면서, 과거를 시행했던 중국, 베트남,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과시 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과시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시의 발원지인 중국에서의 과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최근 과거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단대별, 과체별, 제도별 연구를 종합한 거질의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연구에서 확인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과거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제도의 연혁과 영향 및 역대 登科 상황의 정리, 역대 과거시험 문제와 관련된 교재, 試卷, 程文 및 논저의 정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과거 관련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¹²⁾

둘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은 우한(武漢)대학으로, 천원신[陳文新] 교수 주도로 歷代科舉文獻整理與研究叢刊과 中國科舉文化通志 두 종의 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중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전자는 과거 문헌을 주제로 한 연구단행본으로 구성되었으며¹³⁾ 후자는 과거 문화를 연구한 연구단행본으로 구성되었다.¹⁴⁾ 이 연구는 중국 정부의

12) 문헌 정리 성과로는 전 10권으로 이루어진 馬明仁(2006)을 언급할 만하다.

13)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저자명은 생략함). 『歷代制舉史料匯編』, 『歷代律賦校注』, 『七史選舉志校注』, 『翰林掌故五種』, 『欽定四書文校注』, 『四書大全校注(上、下)』, 『貢舉志五種(上、下)』, 『欽定學政全書校注』, 『唐代試律試策校注』, 『八股文總論八種』, 『游戲八股文集成』, 『梁章鉅科舉文獻二種校注』, 『《游藝塾文規》正續編』, 『《清實錄》科舉史料匯編』, 『二十世紀科舉研究論文選編』, 『明代狀元史料匯編(上、下)』, 『明代科舉與文學編年(上、中、下)』 등.

14) 목록은 다음과 같다(歷代科舉文獻整理與研究叢刊과 중복되는 것은 ‘중복’으로 표시). 『游戲八股文研究』, 『《禮部韻略》與宋代科舉』, 『唐代科舉與試賦』, 『明代八股文選家考論』, 『元明科舉與文學考論』, 『七史選舉志校注』(중복), 『明代狀元史料匯編(上、下)』(중복), 『游戲八股文集成』(중복), 『明代科舉與文學編年(上、中、下)』(중복), 『《儒林外史》의現代

지원을 받아 중국학계의 대표적 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중국학계의 연구 역량이 집약된 과거문화 관련 종합적 연구성과이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과거 전반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의 단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는 우리 학계의 상황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방식이라 하겠다. 이는 조선시대 과거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중국의 경우처럼 문헌 연구와 문화 연구 두 방향으로 연구자들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과시 연구는 기존의 개별적, 단편적 연구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향후 본 과시 DB 연구가 자양분이 되어 과시 연구를 보다 체계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國朝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東人詩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崇禎三甲寅慶科庭試文科榜目』, 규장각 소장.

『要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乙卯增廣司馬榜目』, 『조선시대 생진시방목』 14책, 영인본, 국학자료원.

『日省錄』.

金錫胄, 『息菴遺稿』, 한국문집총간.

誤讀, 『科舉廢止前后的晚清社會與文學』, 『翰林掌故五種』(중복), 『貢舉志五種(上、下)』(중복), 『四書大全校注(上、下)』(중복), 『唐代試律試策校注』(중복), 『《清實錄》科舉史料匯編』(중복), 『歷代律賦校注』(중복), 『梁章鉅科舉文獻二種校注』(중복), 『欽定學政全書校注』(중복), 『八股文總論八種』(중복), 『二十世紀科舉研究論文選編』, 『《游藝塾文規》正續編』, 『欽定四書文校注』(중복), 『歷代制舉史料匯編』(중복) 등.

梁應鼎, 『松川先生遺集』, 한국문집총간.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趙光祖, 『靜庵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馬明仁 編, 『歷代科舉文獻集成』(全10卷)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6

강석중(1999), 『한국 과부의 전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동석(2013),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순(2015),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심경호(2015), 『조선의 科擧와 參考書, 그리고 韻書』, 『열상고전연구』 46집, 열상고전연구회.

안세현(2011), 『조선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상욱(2015),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재욱(2018),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인적 관계망』, 보고서.

황위주(2005),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과제』, 『대동한문학』 22집, 대동한문학회.

허경진·최영화(2015),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nl.go.kr/korcis/>

Overview and Prospect of a Study on History of a Rhetorical Style and a Way of Constructing Logic through Building the DB System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the Joseon Dynasty

Kim, Kyeong · Kim, Kwangnyeon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overview of a Study on History of a Rhetorical Style and a Way of Constructing Logic through Building the DB System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is conducted b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at Korea University and suppor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Gwageo DB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academic, literature, and publishing culture in Joseon Dynasty, by cataloging examination-related data and building a database using literary and stylistic research methods. Specifically, it aims to build a database in three areas: Examination questions, style, examination results(answers for examinations), and reference books, and to study them in a philological way. Furthermore, based on this, we are planning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literary style and logic of the Joseon Dynasty,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state examination culture, and a comprehensive study of intellectual history and academic history through the state examination.

[Keywords] Joseon, Gwageo(State exam), Gwamoon(The style used in gwageo),

Style, State exam questions, Stae exam titles, rhetoric, Logic building method

본 논문은 2021년 3월 7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 심사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22일에 게재를 확정하였음